

보도

빅데이터 속에서 살펴본 우리학교는 어떤 모습?

연관검색어 분석 결과

김규래 기자 rlarbfo41@knu.ac.kr

인터넷 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입력하고 공유하는 글 속에서 우리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소셜 매트릭스 서비스를 통해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에 언급된 우리학교 관련 80,255건의 연관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긍정·부정을 따질 수 있는 감성 연관검색어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좋다’, ‘예쁘다’, ‘따뜻하다’ 등의 연관검색어가 각각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다. 반면,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한 개만 순위에 올랐는데, ‘틀리다’라는 검색어였다. ‘틀리다’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틀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해당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에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 달 간 발생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희대’, ‘경희대학교’ 등이 포함된 자료만 추출해 결과를 분석했다. 다음의 소셜 매트릭스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긍정·부정의 의미를 담은 ‘감성 연관검색어’와 객관적으로 언급 빈도가 높은 ‘연관검색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15개 분석 결과,
가을축제와 인근 대학교 언급 많아

연관검색어를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우리학교가 어떤 단어와 함께 많이 언급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 연관 검색어 15개를 분석한 결과 단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나타났다. 첫 번째는 우리학교에서 최근 진행된 가을 축제 관련 검색어가 주를 이뤘고, 두 번째로 디가오는 입시 절에 맞춰 서울권 인근 대학교도 많이 언급됐다.

우선 최근 진행된 가을 대동제와 관련된 검색어가 6개였다. ‘축제’, ‘가요제’, ‘비스트’ 등이 높은 순위에 떴다. 사람들의 높은 관심으로 큰 흥행을 거뒀던 축제가 검색어 빈도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수능과 입시기간이 다가오면서 타 대학교 연관검색도 많았다. 서울대, 서강대, 건국대 등 여러 주요 대학들이 연관검색어에 올랐다. 해당 대학들은 각각 평균적으로 약 6천여 건의 검색 빈도를 보였다. 조사 시점에는 대학 연관어가 중간 순위에 그쳤지만, 앞으로 있을 수시 시험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기간이 되면 검색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단어에 대해 검색 빈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구글 트렌드 서비스로 최근 4년간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년 11월, 12월마다 대학교의 검색빈도 증가 현상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급증 연관검색어’, 최신 동향 나타내는 지표

한편, 앞서 언급한 구글 트렌드를 이용하면 우리학교와 관련해 단기간에 검색이 급증하는 ‘급증 연관검색어’와 지역별로 우리학교를 얼마나 많이 검색했는지 지역별 검색빈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급증 연관검색어’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학교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어다.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우리학교 관련 급증 연관검색어는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경희대학교 OT’, ‘시국선언’, ‘대자보’ 등이었다. 입시철이라는 시의 성에 어수선한 시국이 맞물린 결과로 관측된다. 또 ‘경희대학교 헤르미온느’라는 검색어도 평소보다 3,300%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난 2012년 시간표 짜기에 서투른 신입생이 29학점을 담은 예비 시간표를 커뮤니티에 올려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던 사건으로 마법을 사용해 동시에 수업을 여러 개 듣는 영화 주인공 ‘헤르미온느’에 빗대 생긴 별명이다.

우리학교의 지역별 관심도, 전라도에서 가장 높아

지역별 검색 빈도를 기반으로 우리학교

에 대한 지역별 관심도를 추출해본 결과 전라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 지역에서는 전라북도의 관심도를 100으로 놓았을 때 전라남도(88), 서울(72), 경기도(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35, 29의 수치를 보였고 부산광역시는 그보다 적어 아래에 집계되지 않았다. 더 간략한 단어인 ‘경희대’로 검색해보아도 결과는 비슷했다. 광주광역시(100)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남도(19)와 경상북도(18)의 관심도는 광주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전라도와 경상도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한편, 우리학교의 랜드마크인 평화의 전당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같은 기간 9,884 건의 언급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긍정적

인 연관어가 대부분이었다. 긍정 연관어는 ‘재밌다’, ‘좋다’, ‘깔끔하다’ 등이 주를 이뤘고, 부정 연관어는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등 두 개였다. 평화의전당은 대형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장소고, 따라서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검색어가 순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구설수가 연일 터져 나오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소셜 미디어나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 퍼져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을 알아볼 수 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수 만 건이 모이면 여론이 되는 만큼, 지표를 통해 여론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급변하는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당신이 가장 필요한 순간
한독 모터스가 함께 합니다.**

Handok Motors
bmwhandok.co.kr

BMW 공식 딜러 한독 모터스

한독 모터스는 차량 구입에서부터 AS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MW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www.bmwhandok.co.kr

전시장

서초 (02) 595-0123
영등포 (02) 3477-0123
강남 (02) 987-0123
용산 (02) 3275-0123

분당 (031) 781-0123
수원 (031) 223-7301
서울 (02) 521-7301
경기 (02) 3477-7401
광주 (062) 382-7301

서비스 센터

서초 종암 (02) 466-7301
분당 (031) 8016-7301
수원 (031) 206-7501
서대구 (053) 653-7301
경북 (02) 3444-7301

파스트레인 서비스 센터 BPS

수원 (031) 282-7301
서대구 종양 (053) 655-7301
광주 상무 (062) 384-7301